

이제 또 한 해가 속절없이 흘러 그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_\_\_\_\_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즐거운 일도 없지 않았을 터이지만 지금의 마음은 허전하고 쓸쓸할 뿐입니다. \_\_\_\_\_ 나이 닳을까요? \_\_\_\_\_

# 길은 먼데 절뚝이는 나귀는 슬피 우네

을·기태완

人生到處知何似 사람이 나서 가는 곳마다 무엇과 같은지 아는가?  
 應似飛鴻踏雪泥 마땅히 날아가던 기러기가 눈 녹은 진창을 밟는 것과 같으리라  
 泥上偶然留指爪 진창 위에 우연히 발자국을 남겨놓고  
 鴻飛那復計東西 기러기가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다시 동서를 헤아릴 수 있으리오  
 老僧已死成新塔 노승은 이미 죽어서 새 부도가 세워졌고  
 壞壁無由見舊題 무너진 벽에선 예전에 썼던 시를 볼 수가 없네  
 往日崎嶇還記否 지난날의 기구했던 일을 아직도 기억하는가?  
 路長人困騫驢嘶 갈 길은 멀고 사람은 피곤한데 절뚝이는 나귀는 슬피 우네

동파거사東坡居士 소식蘇軾(1036-1101)의 <화자유민지회구和子由灑池懷舊>입니다. 이 시는 동생 소철蘇轍(1039-1112)이 보낸 <회민지기자침형懷灑池寄子瞻兄>에 화답한 것입니다.

相攜話別鄭原上 서로 손잡고 정원 땅에서 이별할 때  
 共道長途怕雪泥 먼 길의 눈 녹은 진창이 걱정이라고 함께 말했지요  
 歸騎還尋大梁陌 돌아가는 말은 대량의 길을 다시 찾아가는데  
 行人已度古嶠西 나그네는 고향의 서쪽을 이미 넘어갔네  
 曾爲縣吏民知否 이전의 현리를 백성들은 알아볼까요?  
 舊病僧房壁共題 예전 병들었을 때 승방의 벽에 함께 시를 적었죠  
 遙想獨游佳味少 아득히 생각하니 쓸쓸한 여행길에 좋은 음식도 적을 터인데  
 無言駢馬但鳴嘶 말없는 추마는 다만 슬피 울 뿐이로군요

미주眉州 미산眉山 출신인 이들 형제는 인종仁宗 가우嘉祐 1년(1056)에 부친 소순蘇洵을 따라 경사로 이주하여 이듬해 1057년 나란히 과거에 급제하였습니다. 1061년 형이 봉상부첨위판관鳳翔府簽書判官으로 나가게 되자 동생은 임지로 떠나는 형을 정원鄭原 땅까지 전송하고 다시 경사로 돌아가는 길에 이전에 과거를 보러 상경할 때 형과 함께 머물렀던 민지현 涇池縣의 승방을 회상하면서 시를 지어 형에게 보낸 것입니다. 형의 부임길 중간에 민지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지현 승방에 머물고 있을 때 이들 형제는 노승 봉한奉閑의 방 벽에 시를 적어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동생의 시를 받은 소식은 동생과의 옛 일을 추억하며 마침내 민지현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곧장 노승 봉한의 승방을 찾아갔는데, 노승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들 형제가 머물렀던 승방은 무너진 채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망연자실하여 붓을 휘둘렀습니다.

사 람 이 나 서 가 는 곳 마 다 무 엇 과  
같 은 지 를 아 는 가 ?

마땅히 하늘을 날아가던 기러기가 눈 녹은 진창을 밟는 것과 같으리라. 진창 위에 우연히 발자국을 남겨놓고 기러기가 날아가 버리면 동쪽으로 갔는지 서쪽으로 갔는지 어떻게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만났던 노승 봉한은 이미 세상을 떠나서 새 탐(부도)으로서 있구나. 그리고 예전에 너와 함께 시를 써두었던 승방의 벽은 무너져서 폐허로 변하여 적어둔 시의 흔적을 찾을 길이 없다. 너는 아직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며 고생했던 지난 일들을 기억하고 있느냐?

갈 길 은 멀 고 사 람 은 피 곤 한 데  
절 뚝 이 는 나 귀 는 슬 피 우 는 구 나 .

이제 막 벼슬길로 나선 청년의 말이 마치 인생살이에 통달한 선승의 말처럼 느껴집니다. 인생이란 날아가던 기러기가 눈 녹은 진창에 우연히 발자국을 남겨놓은 것과 같다는 비유는 참으로 참신하고 호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性靈이 발發한 구절이란 칭송을 받았고, 후대의 시인들은 다투어 이를 자신들의 시 속에 전고典故로 인용하였습니다.

소식의 삼부자三父子는 문장이 뛰어나서 ‘삼소三蘇’로 불렸는데, 훗날 모두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로 뽑히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그 중에서 소식은 중국 최고의 문장가로 평가를 받습니다. 시 역시 후대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벼슬길은 참으로 파란만장하였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사마광·구양수와 함께 보수당의 노선을 걸으며 왕안석의 혁신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안석의 혁신과 득세하는 동안 많은 정치적 킥박을 받았습니다. 호주湖州태수로 있던 44세 때 그의 시가 왕안석의 신법新法을 비판하였다는 이유로 구금되어 황주黃州로 유배당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66세에 타계하기 한 해 전까지 유배와 사면의 연속이었습니다. 당시 한 문인의 기록에 “동파가 귀양가 있는 동안 그의 시들은 널리 유행하였다. 조정에서는 소동파의 작품을 소유한 자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였는데, 그 벌금이 80만 전이나 되었다. 그러나 금지가 심해 질수록 소동파의 시는 널리 퍼져만 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법조차도 그의 위대한 작품의 유통을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의 인기는 높았는데, 특히 조선 후기의 문인들은 다투어 그의 초상화를 소장하였고 또 그의 생일을 기념하는 시모임을 개최하는 것이 일대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세모의 감회에 슬픈 시를 읽으니 마음이 더욱 적막하게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또 어느 먼 진창에 우연한 발자국을 찍어놓게 될는지요. ☞

이 글을 쓴 기래원은 중앙대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국문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과정을 수료(한국한문학 전공)했다. 현재 전남대 호남 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홍익대 겸임 교수로 있다. 저서에 《黃梅泉詩研究》, 역서에 《東詩話》《精言妙選》《據梧齋集》《高宗辛丑儀軌》 등이 있다.